

윤	활	회	고
---	---	---	---



國產潤滑油의 初期 (再生潤滑油) I

極東蠟精油(株)社長 宋 振 煥

6·25戰爭이 끝나고 本格的인 復旧作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는 軍服務中에 있었다. 주로 機械工作과 實驗, 試驗部門에 從事하고 있었는데 할 것은 많으나 施設은 充分하지 않고 또한 資材의 不足 등으로 因하여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與件이 좋은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生覺이 들고 마음껏 공부하며 일을 할 수 있어서 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보람이 있었던 時期였다고 느껴진다.

赴任後 몇 個月이 지났는데 하루는 幹部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던 중, 潤滑油의 檢査 問題가 나왔다. 여러가지 要望事項中에 '廢油를 再生하려는 젊은 사람들(高等學校出身)이 試驗을 要請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여 將來를 위하여, 또한 우리 自身의 開發을 위하여 해주어도 無妨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였던 것 같다.

그 當時의 潤滑油는 美軍用 OE-30, OE-50이 大宗을 이루었고, KOSCO라는 會社가 配給을 하고 있었는데 軍도 그 곳에서 供給받았던 것으로 안다. 軍隊가 있는 都市인지라 軍과 關聯된 生業이 相當히 活潑하였는데, 하루는 동네 有志가 와서 廢油工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한 번 訪問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內容인즉 使用한 廢油를 取去하여서 drum에 담아 沈澱시킨 후 윗 부분을 거두어서 硫酸으로 洗滌하여 一晝夜정도 다시 沈澱시킨 후 거둔 것을 加熱하여 白土에 混合한 것을 drum에 넣어 교반시킨 후 天井에 매달아 놓고, 밑에 있는 바게쓰에 가아제를 몇 겹 놓아서 自然滴下

式으로 filtering을 시키는데, 一晝夜정도만 두었다가 이것을 새 潤滑油(OE)에나 相當히 混油하여 他都市에 싣고 나가서 販賣한다는 것이다. 규격도 다 잊어버렸지만 이런 工場이 相當히 活潑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 때는 이런 工場이 10餘個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非正常的인 工場이었고 또한 作業 自体도 晝間에는 하지 않고 밤에만 한다고 하여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때가 아마도 1957년경으로 짐작된다.

이런 家内工業의 方式이 차츰 規模가 커져서 1960년대에는 某氏가 부산시 영도구 東三洞의 산비탈에 60명 정도의 工場을 차리고 廢油를 수집하여 同一한 方法으로 再生하였는데 그것이 盛業을 이루었으며 試驗設備가 不足하여 一部는 工場에서 簡易點檢을 하고 더 詳細한 것은 隣近의 同種의 石油配給會社의 施設을 利用한 것으로 알고 있다. 製品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市販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廢油는 比較的 수집이 용이하였는데 정비공장, 其他工場의 發電機의 廢油等を 수집하였다. 때가 戰後인지라 發電能力이 不足하여서 大部分의 工場이 發電機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도 廢유가 용이하게 수집되었던 것 같다. 여하간에 이 廢유 再生은 그 方法이 原始的이어서 質的으로 特히 酸度 등의 規格이 맞는지는 記錄이 없어서 알 수도 없지만, 焦點을 色相에다 두었고, 粘度 또한 손으로 만져 보아서 適否를 決定하였던 때이고 OE나 기타 SY 31 00이라는 潤滑油와 相當히 섞어서 使用한 것으로 안다.

本格的인 規模의 廢油再生은 5·16 이후 潤滑油의 國産化가 強力히 推進되어 國産 潤滑油가 生産될 때부터 더욱 活氣를 띠었고, 더우기 이때부터는 未備하나마 여러 設備들을 規模있게 갖추게 되었으며, 그것이 계속 發展되어 왔으나 基油를 使用하는 現在의 混油 施設을 갖춘 工場과는 差異가 있었다.

最初의 規模있는 潤滑油生産 施設이 갖추어

진 후에도 여러가지 形態의 再生油가 市場에서 活潑하게 거래되었던 까닭은 機械工業이 아직도 搖籃期에 있었고, 油類는 100% 輸入되고 있었기 때문에 價格의 高下를 莫論하고 貴重品視되었고, 빈 D/M 통으로 버스의 housing을 만들어 사용하던 時代였으므로 當時의 樣相을 充分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